



오는 31일까지 나인갤러리에서 열리는 '나인갤러리 신소장품전'에서는 전광영·이건용 등 국내 대표작가의 작품 20여점을 만난다.

전광영·이건용, 화제의 작가를 만나다

2022 베니스비엔날레 병행전시로 선정돼 화제를 모았던 전광영, 내년 구겐하임미술관에서 초대전을 갖는 이견용.

국내외 미술계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나인갤러리(관장 양승찬·동구 예술길 20-6)는 이배, 오세열, Kim25, 우병출 등 6명의 작가를 선정, '나인갤러리 신 소장품전' (31일까지)을 연다. 전시작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컬렉션한 작품으로 모두 20여점을 만난다. 작품 수가 많지는 않지만 민간 갤러리에서 선보이기 어려운 작품들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요즘 가장 핫한 작가로 꼽히는 이견용의 작품은 소품부터 50호까지 모두 9점이 나왔다. 국내 행위예술 1세대 작가인 이견용은 몸의 움직임에 기록한 '신체 드로잉' 작품을 선보인다. 그는 내년 구겐하임 미술관 기획전에 참여하며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뉴욕 페이스 갤러리와 전속 계약을 체결, 현지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베니스비엔날레가 열린 현지에서 개인전 '재창조된 시간들(Times Reimagined)'을 통해 각광받은 전광영 작가는 전통 한지로 작업한 '집합(Aggregation)' 시리즈 작품을 전시한다. 1994년부터 시작된 한지 오브제 작업은 다양한 크기의 스타로폼을 종이로 싸고 묶는 이색적인 기법을 활용한 작품으로 각각의 조각들이 어우러져 또 다른 조형성을 만들어내는 게 특징이다.

파리를 주무대로 활동하는 이배 작가는 '숫의 작가'

'나인갤러리 新 소장품전'

이배·오세열·Kim25·우병출 등 6명 작가 31일까지 20여점 전시



이건용 작 'The Method of Drawing'

로 불린다. 숫자루를 안료와 함께 섞어 작업하는 그는 여백의 미를 살린 흰 바탕에 숫으로 강렬한 검은 획을 자유롭게 그려내려 작품을 완성한다.

마치 칠판에 분필로 낙서한 듯한 느낌의 오세열 작가의 작품은 아이가 뽀뽀뽀하게 쓴 글씨체와 전혀 상관성이 없는 오브제, 다채로운 색감이 어우러져 색다른 느낌을 준다. 유희물감을 7~8번 덧칠한 후 나이프와 면도날 등으로 긁어내며 작업했다.

꾸준히 추상작업에 몰두해온 Kim25 작가는 바다 형상과 텍스트를 결합해 새로운 조형성을 만들어낸 작품을 선보인다. 색과 형상으로 바다를 묘사하고, 그 위에 텍스트를 촘촘히 쌓아 전체 그림을 완성했다.

그밖에 가느다란 세필로 도시 풍경을 완성해 나가는 우병출 작가의 신작도 만날 수 있다.

지난 1994년 문을 연 나인갤러리는 지난 2005년 화랑협회 가입후 KIAF 등 굵직한 아트페어에 참여하고 있다. 같은 해 이이남 작가 등과 함께 뉴욕아트페어에 참여한 후 마이애미 아트페어 등 해마다 15~16회의 해외 아트 페어에 참가한다.

양승찬 관장은 "전시작들은 지역 화랑에서 좀처럼 보기 어려운 작품들"이라며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새로운 예술의 세계를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월~토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 문의 062-232-2328.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여성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공연 모습.

'영&프로 피아노 협주곡의 밤'

광주여성필하모닉-한국음악지도자협, 11일 북구문화센터

청소년 제자와 스승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연이 마련됐다.



정병휘



이민음



정소윤

광주여성필하모닉 오케스트라(대표 김유정)와 한국음악지도자협회(대표 이민음)가 협업하는 '영&프로 피아노 협주곡의 밤'이 11일 오후 7시 북구문화센터에서 열린다.

공연의 지휘는 빈 국립 음대 오케스트라 지휘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 음악대 외래교수를 맡고 있는 정병휘가 함께한다.

먼저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을 제64회 호남예술제에서 최고상을 수상한 정소윤(광주예술중 1년)이 연주하고 베토벤 '협주곡 제 1번'을 최지호(울산 범서초 6년)가, 멘델스존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정경희가 무대에 올린다.

또 이민음이 브루흐의 '두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1악장'을 정현주(일신중 3년)와, '3악장'을 장호(홈스쿨 고 2년)와

선보인다. 리스트 '피아노 협주곡 제1번'을 설효선이 연주하고 쇼팽 '피아노 협주곡 2번'을 박재원이 펼친다. 이어 생상 '피아노협주곡 2번'을 김혜원이, 그리고 '피아노협주곡 16번'을 한수연이 연주한다.

한편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1999년 창단해 2012년과 2019년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올해는 광주시립발레단 '돈키호테'와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피노키오'에 협연공연으로 함께했다. 전석 초대, 010-8537-8844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화순전남대병원 '치유의 음악회'

내일 피아니스트 원재연, 쇼팽 '왈츠'·슈만 '환상곡' 등 연주
미래에셋증권 최현만 회장 기부 스타인웨이-보스톤 구입

병원은 위로와 위안이 가장 필요한 공간 중 하나다. 음악으로 치유의 마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음악회가 열린다.

한국을 대표하는 젊은 피아니스트로 주목받는 원재연이 오는 9일 오후 4시 화순전남대병원 지하 대강당에서 연주회를 개최한다.

'치유-천상의 소리'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연주회는 화순전남대병원이 세계적인 명기 스타인웨이-보스톤 피아노를 구입한 것을 기념해 열려 눈길을 끈다.

귀한 피아노를 선물한 이는 미래에셋증권 최현만 회장이다. 최 회장은 지난 10월31일 힘겹게 투병하는 환자들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음악 치유에 힘 써

달라며 5000만원을 기부했고, 병원측은 169년 전통의 스타인웨이-보스톤 피아노를 구입해 이번 연주회를 준비했다.

공연은 일반 시민들도 관람할 수 있다.

이번 무대에 서는 원재연은 지난 2017년 제61회 부소니 국제피아노콩쿠르에서 준우승과 청중상을 동시에 거머쥐어 전 세계에 이름을 알렸다.

이화경향콩쿠르 1위, 동아음악콩쿠르 1위 등 국내 유수의 콩쿠르를 석권한 그는 이후 스페인 페롤 국제 피아노 콩쿠르와 독일 쾰른 칼로버트크라이텐 프라이즈에서 우승하고 프랑스 파리 퉁티보 국제 음악 콩쿠르에서 수상했다.

그는 이번 연주회에서 '피아노의 시인'으로 불리는 쇼팽의 '녹턴 2번 E♭장조'와 '왈츠 E♭장조', 슈만의 '환상곡 C장조' 전곡을 들려준다.

화순전남대병원장은 이번 스타인웨이-보스톤 피아노 구입을 계기로 환자들을 위한 치유의 음악회를 지속적으로 열 계획이다.

정용연 화순전남대병원장은 "병원이 환자들의 병을 치료해주는 공간을 넘어 환자들의 마음까지 치유해 줄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환자들을 위해 기부해준 최현만 회장님과 원재연 피아니스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지난해 열린 '고싸움놀이' 모습.

민속 축제 고싸움놀이 열린다

9~11일 칠석동 고싸움놀이 테마파크

삼한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온 우리네 민속놀이를 만나볼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다.

제 39회 고싸움놀이 축제가 9일부터 11일까지 남구 칠석동 고싸움놀이 테마파크에서 펼쳐진다.

새끼줄을 길게 늘어 동그랗게 맺은 '고' 두개가 맞붙어 싸움하는 국가무형문화재 제33호 '고싸움놀이'는 광주시 남구 칠석동의 큰 행사로 정월대보름마다 펼쳐졌다.

코로나19 발생 이후로 가장 크게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고싸움놀이를 비롯해 세시풍속 등 전통문화를 만나볼 수 있다. 먼저 첫날인 9일 오후 1시 30분 봉철순의 난타공연과 함께 무학초의 사물놀이와 대춘중의 판굿무대가 펼쳐진다.

이어 5인 줄다리기 대전, 팽이달리기, 굴렁쇠, 제기차기, 고리던지기 등 전통 놀이에 직접 참여해 볼 수 있는 장소 마련됐다. 오후 6시부터 약 1시간 30분 가량은 한

국의 전통 민속놀이로 땅바닥이나 널판에 놀이판을 그리고 말을 조종하는 '고누' 대회도 열린다.

둘째날인 10일에는 놀이패 만월의 공연과 칠석 농악단의 판굿, 고성오광대의 초청공연이 펼쳐진다. 이선호의 매직 버블쇼, 이대형의 어썬싱어즈 등도 만나볼 수 있다.

오후 6시부터는 개막식이 진행된다. 이매방춤, 삼고무공연 등을 초청공연으로 선보이며 소원 등불, 불꽃놀이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이날 오후 7시 20분에는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고싸움놀이 시연도 펼쳐진다.

마지막 날에는 북청사자놀음과 임실평봉농악, 조선대의 태권도 공연, 무형문화재의 줄타기 등을 만나볼 수 있다. 또 상설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연날리기, 고동차놀이, 공예전시, 고싸움놀이 VR체험 등이 마련돼 있다.

오후 6시부터 약 1시간 30분 가량은 한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광주·베트남 응에안성 예술인 함께 전통공연

'화합' 주제 문화교류행사... 10일 전통문화관

광주시 무형문화재와 베트남 응에안성 예술인이 함께하는 전통공연이 펼쳐진다. 오는 10일 '베트남 응에안성 예술인 광주 초청 공연'으로 장소는 전통문화관.

이번 행사는 광주와 베트남 응에안성 간 자매결연 후 첫 번째 열리는 전통문화교류 행사다. '화합'을 주제로 광주시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와 응에안성 전통문화예술센터의 전문예술인들이 출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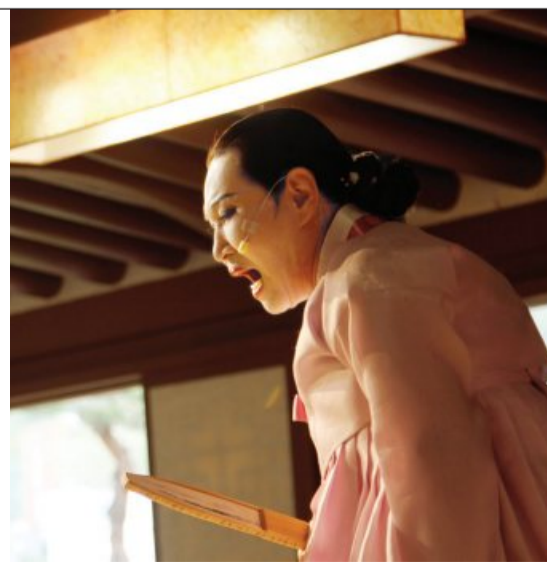
광주에서는 무형문화재 판소리 춘향가 예능보유자 방성춘과 제자의 '춘향가 中 춘향 추천 대목', 무형문화재 가야금병창 예능보유자 문병자와 제자들의 '흥보

가 中 제비노정기', '신 뱃노래'를 연주한다.

베트남 응에안성 전통문화예술센터의 예술인들은 허몽족 민속춤 '기원'을 선보인다. 허몽 부부의 일과 행복 등이 담겨 있다. 이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킨족 민속춤 '비잠 고향의 정'이 펼쳐진다.

공연은 무료이며, 누구나 관람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전통문화관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문의 062-670-8503.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방성춘